



5·18 40주년, 다시 5월

5·18 법안 대부분 상임위 통과 못하고 폐기 수순 180석 '슈퍼 여당' 진상규명 입법에 적극 나서야

21대 총선 광주·전남 당선인들 "5·18 왜곡 처벌법안 연내 통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슈퍼 여당'으로 자리 잡은 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와 미래를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개헌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입법을 밀어붙일 수 있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대거 자동 폐기되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들에 대한 재입법에 나서 그동안 은폐·왜곡했던 '5월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을 당의 주요 입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당 지도부가 21대 국회에서의 법제화를 약속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지난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결의안 포함)은 53건에 이르고 있으나 원안 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그와 관련된 개정안(2건), 대안 반영 폐기(2건) 등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4건이 가결되고 4건이 대안 반영 폐기됐다.

이런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 왜곡, 날조에 대한 처벌 관련 법안은 7건이나 발의됐지만 대부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여기에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보완·강화하는 법안도 8건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제로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법안들은 물론 조사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조

건 완화, 진상 조사 거부자 과태료 상향 등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 관련자 및 관련 단체들에 대한 각종 지원 법안도 15건이나 발의됐지만 법제화에 실패했다.

이밖에도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자 및 계엄군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 법안, 5·18 민주화운동 진압자 정부 표창 취소 법안, 미국 정부에 대한 5·18 자료 요청 지원 법안 등 각종 5·18 관련 법안들도 빛을 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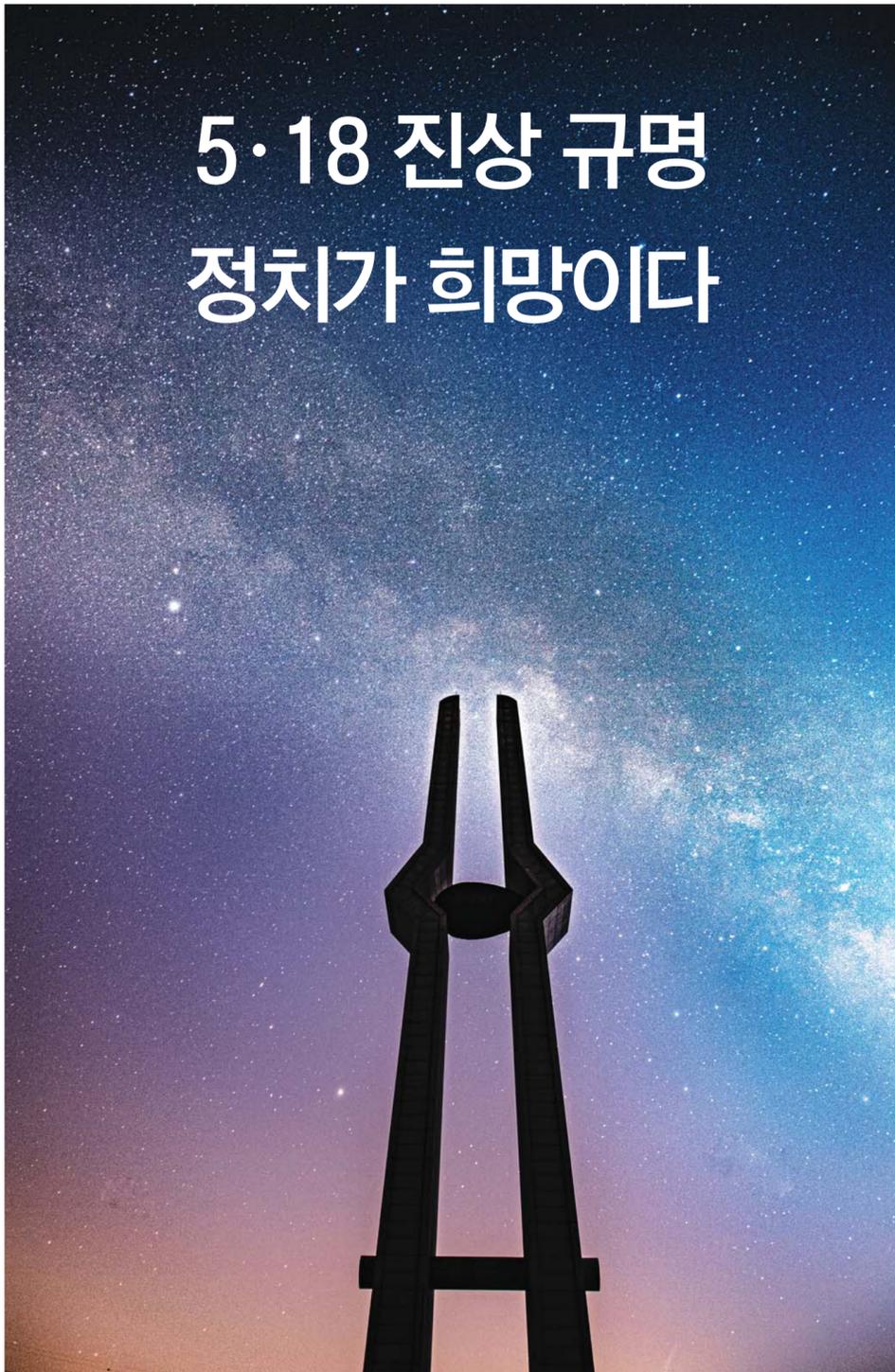
이처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대거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한 것은 각 상임위에 포진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대가 결정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개혁·진보 진영 의석수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함에 따라 주요 법안이 논의될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보수 진영의 벽을 넘지 못했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의 입법에 적극 나서, 그동안 은폐되고 날조됐던 5월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5·18 관련 법안을 당의 주요 입법안에 포함시키고 대표와 원내대표 등 새로운 지도부가 이를 공식 천명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을 광주·전남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발의 1호 법안으로 하고 이를 당의 주요 입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올해 내에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5·18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기필코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5·18 진상 규명 정치가 희망이다



40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은 한과 슬픔이 오월의 밤하늘을 '눈물의 바다'로 만든 듯 국립 5·18민주묘지의 추모탑 주변으로 은하수가 펼쳐졌다. 왜곡과 폄훼로 상처받은 5·18이 올해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 그날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기를 소망한다. 지난 30일 오전 3시 10분께 니콘 D5 카메라와 24mm 렌즈를 이용해 촬영했다. 촬영된 은하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보정 작업을 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구 100만 원 11일부터 신청접수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코로나 19 관련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 만이다.

〈관련기사 3면〉

국회는 지난 29일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절차가 지연되면서 차수를 변경해 30일 오전 0시 50분께 본회의에서 재서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추경 처리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000억원 규모다.

국회는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금 모집과 사용에 관련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항금연후 코로나19 지킴이들 ▶6면
KIA 핫 플레이어 - 포수 한승택 ▶18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연휴 날씨	1(금)	2(토)	3(일)	4(월)	5(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며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4·5일 신문 쉽니다

#PlayByYourRules

The New A-Class Sedan & The New CLA Coupé.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문대로 1041(화정동)
 MB 인종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원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A 220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4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2.7km/ℓ(도심연비: 11.2km/ℓ, 고속도로연비: 15.2km/ℓ)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 135g/km · A 250 4MATIC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515kg, 자동7단), 복합연비: 11.6km/ℓ
 (도심연비: 10.4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 148g/km · CLA 25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550kg, 자동7단), 복합연비: 11.5km/ℓ(도심연비: 10.3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배출량: 150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